

산교인(삼경원) 및 니시무로(서실)(가마쿠라 시대 국보)

니시무로(서실)는 서원 가람의 지붕 달린 회랑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, 예전에는 승려들이 거주하는 승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러나, 1077~1081 년 사이에 소실되어 1231 년에 현재의 건물 남쪽이 산교인(삼경원)으로 재건되었고 1268 년에는 니시무로가 재건되었습니다. 산교인이라는 명칭은 호류지 절을 창건한 쇼토쿠 태자(574~622 년)의 저작 『삼경의소(三經義疏, 산교기쇼)』(승만경, 유마경, 법화경 세 경전의 주석서)에서 따온 것입니다. 이들 경전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. 『삼경의소』는 615 년에 완성되었으며 현존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서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매년 5 월 16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니시무로에서는 사찰의 승려가 삼경을 강의하는 안거(安居)라는 행사가 열립니다.